

# 비트코인이 뭐길래...광주도 투자 광풍



**정부 규제 움직임에도  
직장인에 학생들도 뛰어들어  
일확천금 노리다 낭패 우려**

**비트코인 받는 식당까지 등장  
고수익 미끼 사기행각도 기승**

광주의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모(34)씨는 요새 수시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난 2009년 일본인이 만든 디지털 통화)에 100만원을 투자한 윤씨는 하루 뒤 가격이 오르자 여윌돈 160만원을 다 쏟아부어 총 260만원을 투자했다. 6일 기준 1개당 17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3일 뒤인 지난 9일 2480만원까지 치솟았다. 윤씨의 투자금은 330만원까지 올라 70만원의 이익을 냈다. 윤씨는 실시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비트코인 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차례 가상화폐거래소 앱인 '빗썸'을 켜고 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0일 비트코인 가격은 1300만원대로 폭락했고 현재는 19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씨는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자 지난 11일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되팔았다. 윤씨가 되팔 때의 가격은 270만원. 지난 5일간 마음을 졸인 결과 10만원을 번 것이다.

윤씨는 "인터넷 등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쉽게 벌었다는 말을 듣고 수익금으로 컴퓨터를 바꿔보자는 생각에 투자했다"며 "한때는 생각처럼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 주말 갑자기 폭락했고 더 이상 오를 기미도 없어 손을 뗐다"고 손사래를 쳤다.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그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지인들이 많고 있다"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들었다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광주에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10대 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외국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비트코인용 계좌를 만들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많은 미성년자들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 일자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광양 등지에서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째 18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916명에게 387억원을 받은 일당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수 박정운(52)씨도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는 단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컴퓨터로 일종의 계산문제를 풀었을 때 주어지는 비트코인을 파는 방식(채굴 방식)과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채굴 방식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전무하다고 알려지면서 이미 시중에 나온 비트코인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C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는 이날 하루에만 1만여개의 글이 올라오며 투자 열기를 입증했다. 자신을 '급식'(급식을 먹는 학생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밝힌 한 중학생은 전제산 30만 원을 투자해 4만원을 벌어 차킨을 사먹었다고 자랑스레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급식 수익 인증'이라며 거래 내역을 올린 미성년자들도 다수 보였다.

지난 10월말부터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인들이 대거 투자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업을 시작한 회사원 송모(33)씨는 "외국에서 비트코인 1개 가

격이 1900만원 수준이었을 때 한국에서는 2400만원에 거래되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며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등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122개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하루에 2~3배 가격이 뛰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걸 구입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는 계산대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겁니다' 문구를 써붙여놓은 식당까지 생겼다. 가상화폐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은 비트코인 거래 앱을 통해 식당 주인의 가상 지갑으로 음식값만큼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식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음식값을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모(25)씨는 "인터넷 등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자랑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니 많은 사람들이 투기심에 거래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미성년자 거래 등은 규제를 한다고 해도 외국 서버를 이용하면 되니 현재로서는 개인의 자제력에 맡기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음주차량 변압기 "황"...한때 정전 광주 남구 일부 주민 추위에 '별벌'

50대 음주 운전자가 낸 변압기 충돌 사고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광주시 남구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1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양모(57)씨는 지난 11일 밤 9시37분께 남구 노대동 국제테니스장 인근 교차로에서 진월지구 방면으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양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씨가 낸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이 일대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휴먼시아 3단지 853세대 등 일대 주민들은 한파 속에 갑자기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직원이 출동해 40여분 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양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경찰 "영종도 참사, 급유선·낙시배 쌍방과실" 결론

**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인천 영종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남겼다.

찰에 넘겼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날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종도 진두항 남서방 1.25km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고급 승용차만 골라 금품털이 20대 검거 조사

광주광산경찰청 12일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금품을 털 혐의(절도)로 최초(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A(54)씨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현금 330만원을 몰

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9회에 걸쳐 금품 4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이트 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대개 문(잠금장치 해제)이 열려 있는 고급 승용차의 특성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검찰, 비트코인 환치기 단속 나서

검찰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자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신종 범죄 중 환치기를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환치기는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

꾸는 방식이다.

외견상 비트코인 국제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전문 환치기 사범들이 개입하면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통해 외국

과 국내 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사범이 늘면서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검 차원의 입장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선청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말간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산다.

이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 연락책이 이를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

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긴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통상 한국에서의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비싸다. 많을 경우 1코인에 100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